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제공

씨 뿌리는  
자와 씨앗



저자: E. Duncan Hughes

삽화: M. Maillot, Lazarus

각색: E. Frischbutter, Sarah S.

번역: Koh Woon Choi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http://www.M1914.org)

©2007 Bible for Children, Inc.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서는  
강가에서 가르치셨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 군중은 점점  
 많아졌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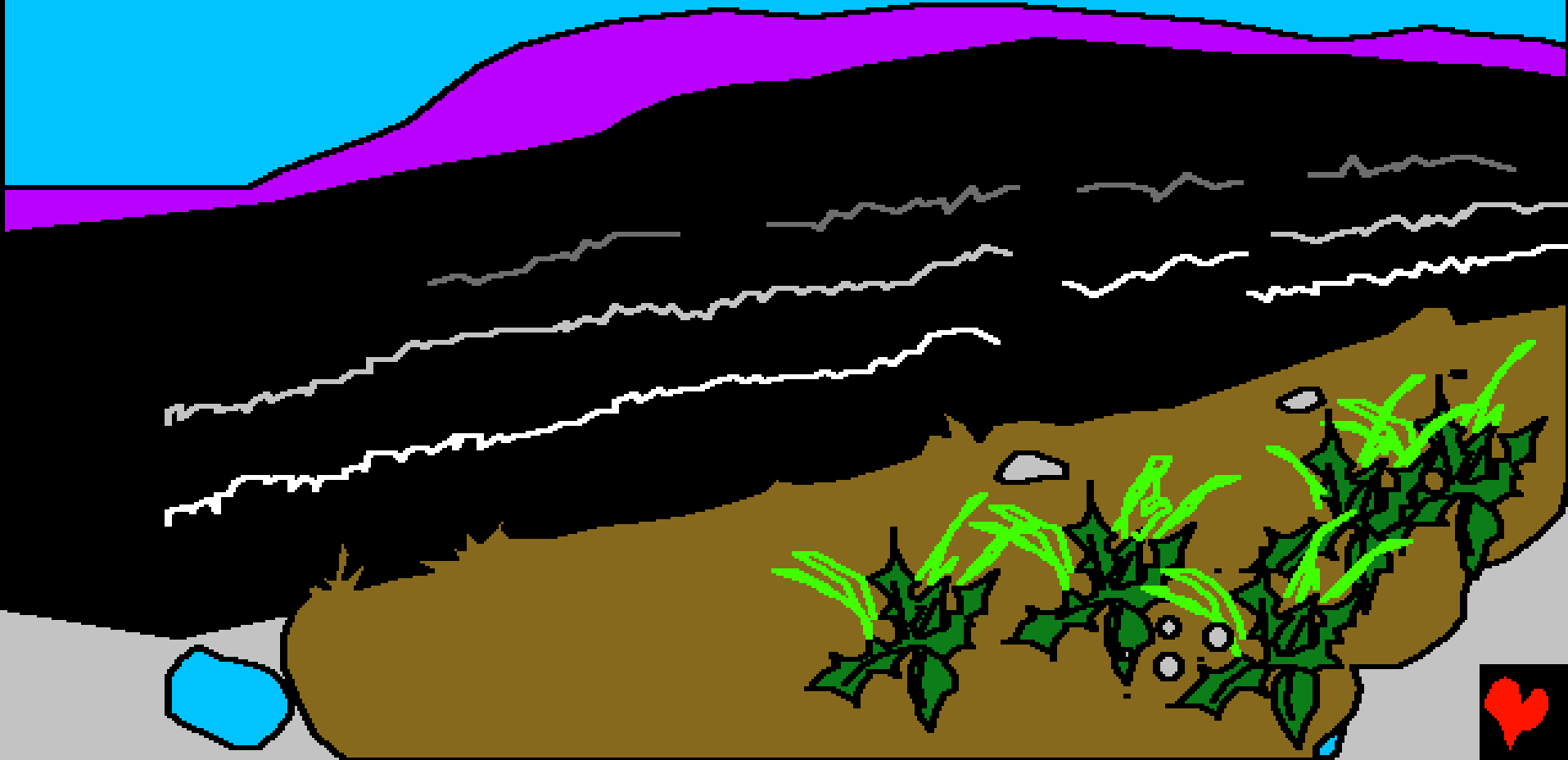
예수님은 가까이 있는 배를 보시고,  
배에 오르셨다. 이제야 예수님께서서  
사람들은 보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들을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준 평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한 농사꾼이 그의 땅에 씨를 뿌렸노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림 대신 글로 표현한 사진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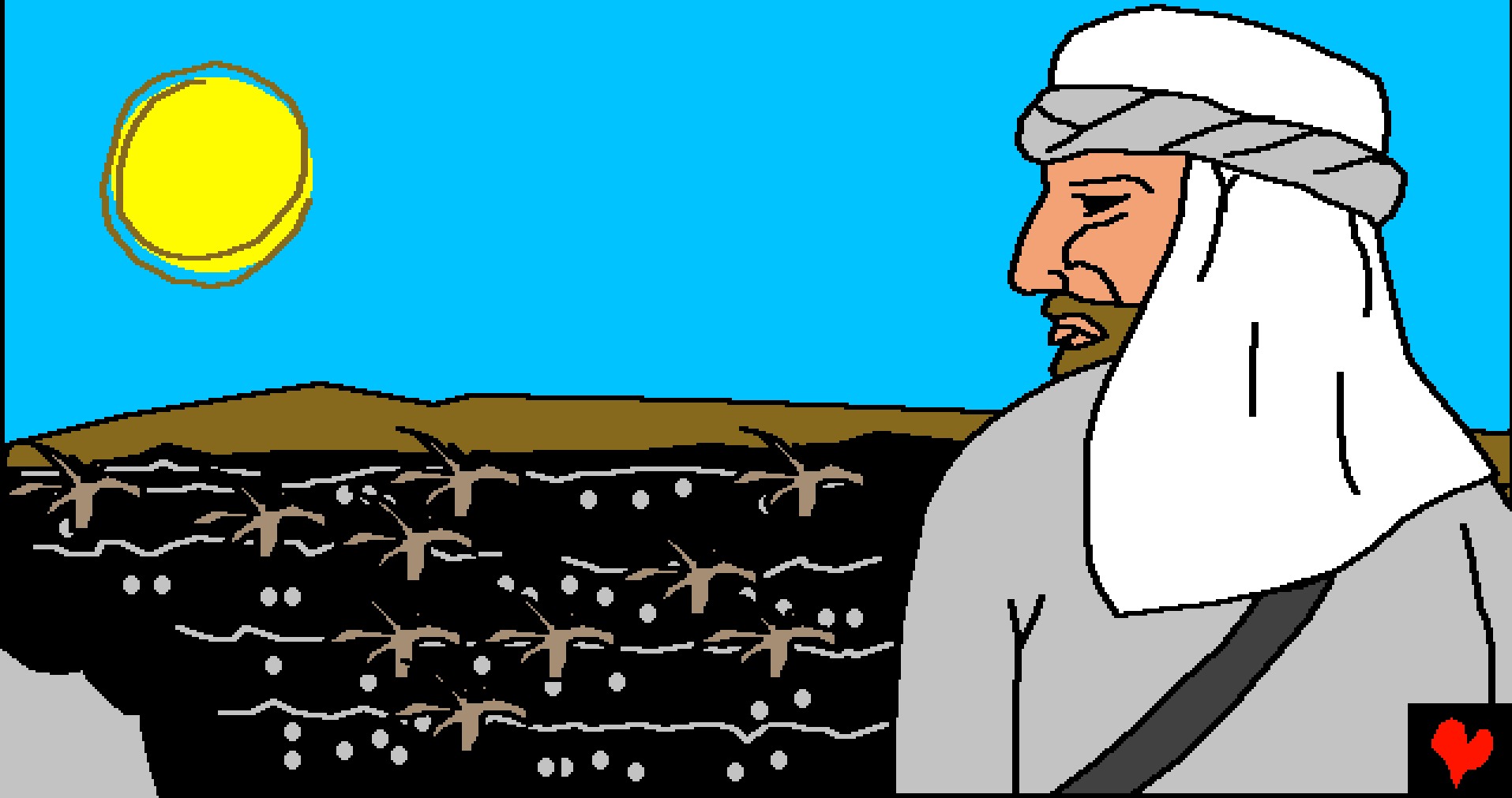
사람들은 그들이 평소에 볼 수 있었던 일하는  
농사꾼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다.



몇몇의 씨들은 길가에 뿌려졌다.  
쉬익! 새들이 씨를 쫓아 먹기  
위해 빠르게 내려앉았다.



어떤 씨들은 흙이 얇은 돌 밭에 떨어졌다.  
그 씨들은 빠르게 싹이 터져 나왔다. 씨들은  
얇은 땅에서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 그들은 시들어 죽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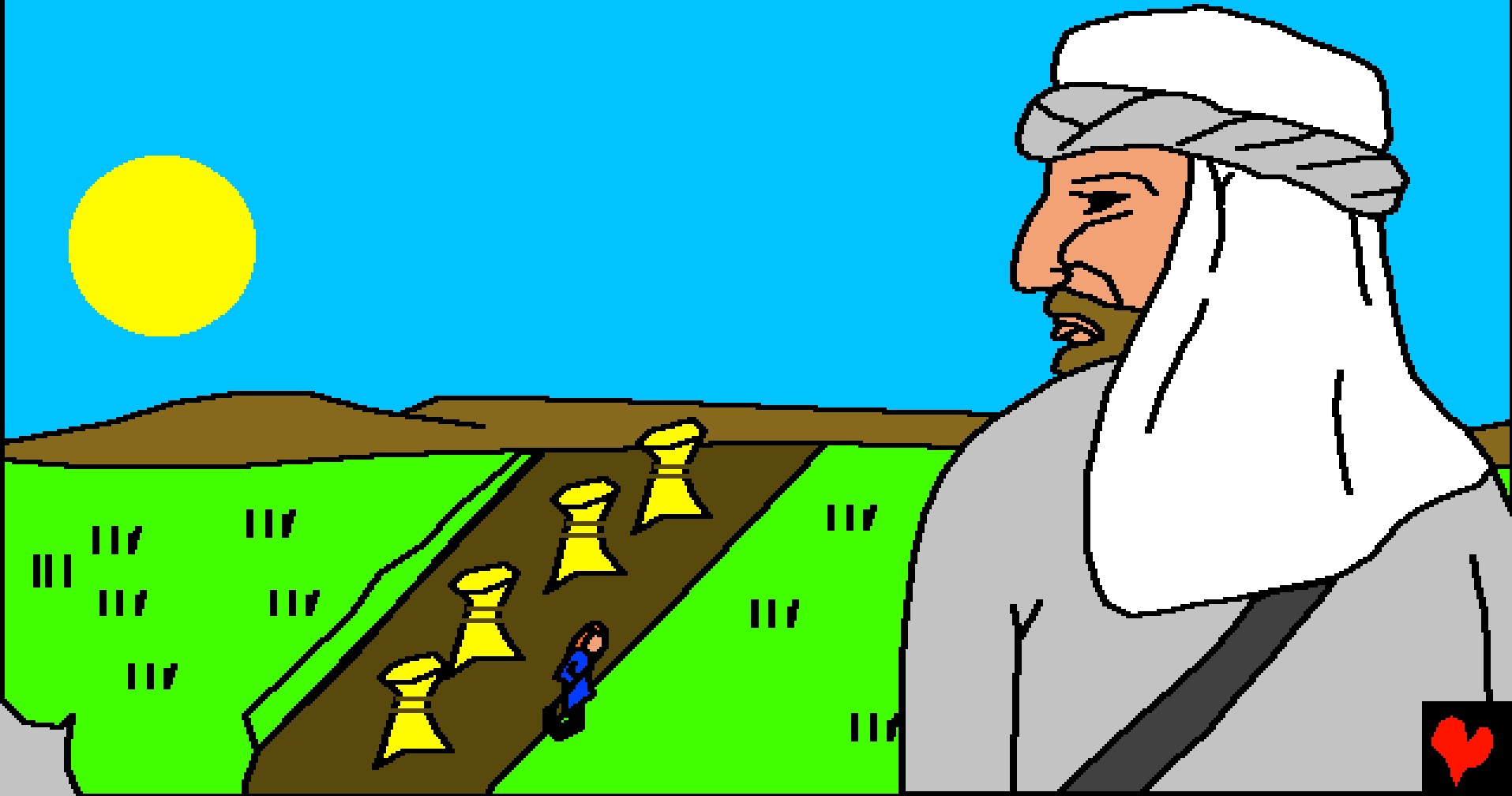
다른 씨들은 가시떨기 위해 떨어졌다.

씨들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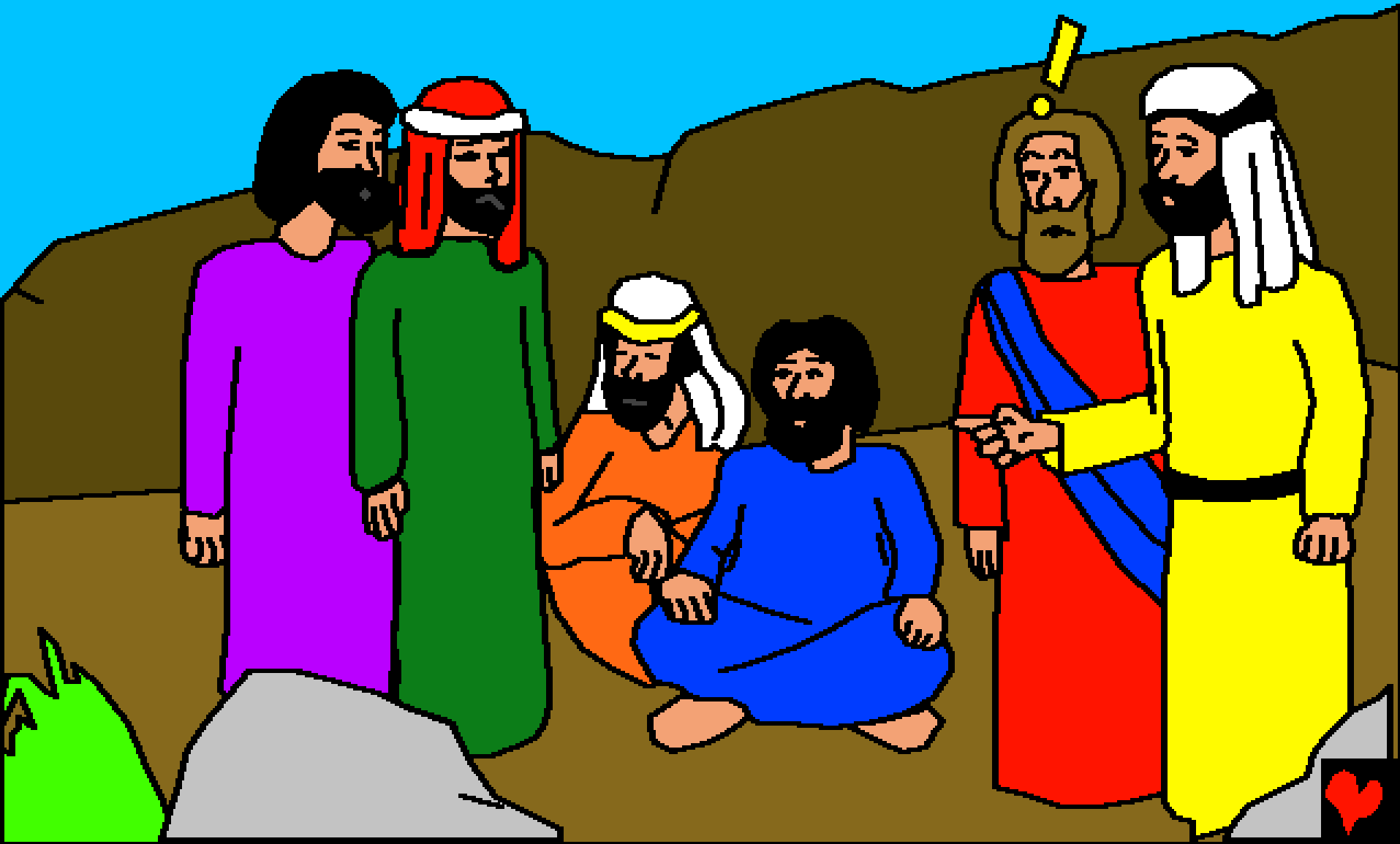
자라나는 싹들 주위를 둘러  
싼 가시들이 싹에게 필요한  
태양과 비를 막았다.



남은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시간이 갈수록, 새싹들은 건강해지고 몇 배의 결실을 맺었다. 농사꾼은 분명 기뻐할 것이다.



이야기가 끝나갈 때, 제자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물었다.



예수님께서, 비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유를 이해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 사단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한다.



어떤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드린다. 그들은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누군가 그들을 욕하거나 그들이 말씀을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 곧 넘어졌다.



이러한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르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값을  
치르고 싶지 않았다.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친구를 기쁘게 함을  
더 중요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비유 속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어떤 사람들의 삶이  
염려와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을 비유한다.  
그들은 돈을 모으느라, 또 다른 일들을 하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지고 정성 들여 키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 박혀 그들의 삶을  
변화 시킨 것이다. 이들은 나를 경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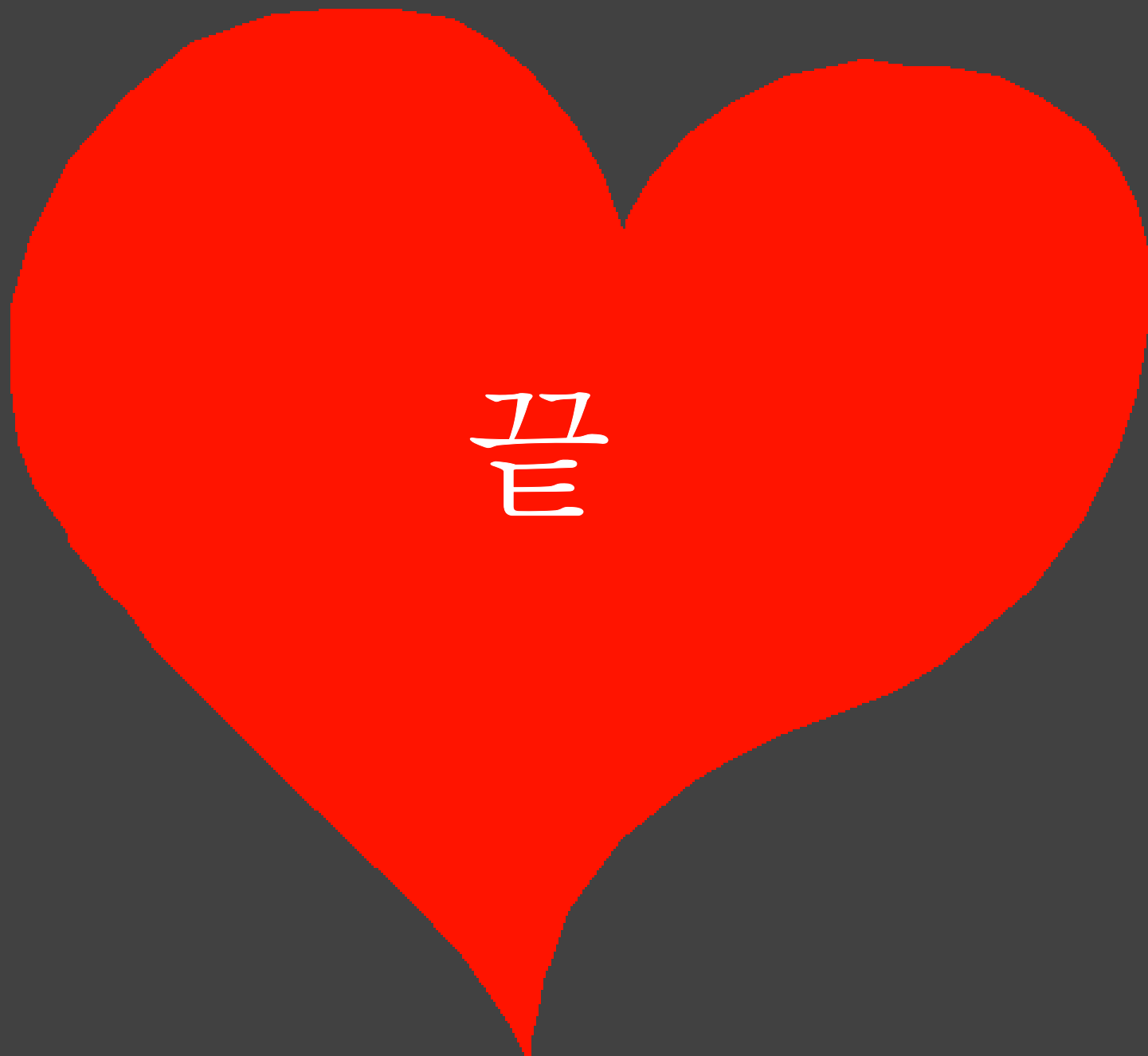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기쁘게 해드리길 원했다. 예수님의  
비유들이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 해야 하는 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왔다.



씨 뿌리는 자와 씨앗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끝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